

## I. 기획하면서

연구원이 올해 2020년 7월30일로 개원 30년을 맞이하였다. 우리의 인생사로 보면 서른 살이란 어엿한 성인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서 한 몫을 할 나이가 된 셈이다. 시간적 범주에서 30년은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임과 동시에, 새로운 것을 향해 구체적인 방향을 정해서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나이로 하겠다.

연구원도 우리의 인생사와 비슷하단 생각이 든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인 1990년 설립 당시엔 설레는 마음으로 시작하여 IMF를 겪으면서 내적·외적으로 내실을 다지려 했던 시기였다면, 2000년 밀레니엄 시대에는 정보화 사회로의 전환기에 발맞추고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국책연구원으로서의 역할에 노력을 경주한 시기라 하겠다. 이런 시기를 거쳐 오늘날에는 4차 산업혁명과 COVID-19 이후의 사회변화 대응, 미래법제 등 다양한 이슈에 필요한 입법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시기에 당면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우리의 연구방법도 문헌연구에서 비교법연구, FGI, 설문조사, 통계기법 등 다양화되어 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연구성과를 통해 국가 입법지원 및 국책연구기관으로서 명실상부한 위상을 굳혀가고 있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렇듯 30년이란 세월 속에서 시대상황의 변화는 물론 그 변화에 따른 연구방법 및 성과도 다양화의 일변을 견고히 있으나, 30년이란 긴 여정에서 우리의 뒤를 살펴보고 현재를 바라보면서 앞으로의 연구원을 어떻게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 성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번 개원 30주년을 기획하는 과정에 이러한 취지를 담기 위해 원장님을 비롯한 연구원 구성원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법제연구의 과거·현재·미래를 주제로 연구성과 보고회를 하게 되었다.

# 개원30주년 연구성과 보고회



☞ 정명운

☐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본부 본부장

☎ myong-u@klri.re.kr

## II. 연구성과 보고회 프로그램과 내용

연구성과 보고회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스토리텔링 방식의 좌담회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1부 주제발표는 한국인의 법의식 변화와 발전(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성과와 입법정책 발전에 미친 영향(윤장근, 전 법제처 차장), 연구성과와 법학발전에 미친 영향(최성근, 법연동우회 회장·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구생태계 변화와 연구방향(이국운, 한동대학교 법학부 교수)의 4개의 세부주제를 발제하였다.

세부주제 중 한국인의 법의식 변화와 발전은 연구원에서 주요 연구과제로 진행해 온 국민법의식조사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이번에는 텍스트 데이터분석 기법을 통해 30년간의 한국인의 법의식의 변화와 특성 및 개선 시사점을 발표하는 자리로 하였다.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는 주제로서 연구원의 30년간 이룩한 연구성과가 입법정책과 법학발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더불어 외부의 시각에서 향후 30년의 연구원에 대한 기대와 발전에 필요한 제언을 가감 없이 수용하기 위한 자리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연구생태계 변화와 연구방향 주제는 현재의 법제연구 방법이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연구생태계 변화에 법제연구를 어떻게 투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한 연구자가 이러한 생태계에 어떠한 자세로 연구에 임해야 하는가를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자리로 하였다.

1부 주제발표에 이어 2부의 스토리텔링 방식의 좌담회에는 자연환경국민신탁 이사장(전재경)을 좌장으로 연구원 OB(김명용, 창원대학교 법학과 교수), 자문위원(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대표변호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길홍근, 사무총장),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김건희, 경영본부장), 법제처(한영수, 기획조정관)의 인사와 연구원의 부연구위원(김동균, 박사)을 토론자로 모시고 법제연구의 과거·현재·미래에 대한 고견과 우리의 미래상을 위해 노력해야 할 사항을 고찰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

## III. 성과와 교훈

연구성과 보고회의 기획취지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0년이란 길고 긴 세월 속에서 우리의 과거를 뒤돌아 보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연구원, 구성원 모두가 미래 지향적인 연구원, 향후 30년·50년의 연구원 미래상을 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어 만들어 가는 초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깃들여 있다. 주제발제와 좌담회에 참석해 주신 한 분 한 분의 고견은 이 초석 마련을 위한 성과임과 동시에 교훈이라 하겠다.

연구성과 보고회는 성과와 교훈 이외에 우리에게 하얀 도화지에 어떠한 모습의 연구원을 그릴 것인가 또한 그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숙제를 주었다고 하겠다. 이 숙제는 우리의 몫이며 그동안 30년의 연구성과와 연구 노하우 그리고 발전하려는 노력에 비추어 멋진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다.